

동네방네

장흥군, 하수도정비에 국비 200억 확보

장흥군은 지역 하천과 남해연안의 수질 보전을 위해 하수도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하수도분야 3건의 사업에 국비 200억원을 확보했다. 계속사업을 포함한 총 7개 사업 532억원을 바탕으로 23개 마을에 대해 하수도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다. 금년 3월에도 13개 마을에 하수도를

보급하기 위해 2021년도 하수도분야 신규사업 5건에 국비 187억원을 환경부에 예산신청 건의했다. 관계자들은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을 수시로 방문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내년에도 잔여 13개 마을에 대해 하수도 정비사업을 환경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김일환 기자 1234kim@

전남도, 시설원에 '스마트팜 지원' 추진

전라남도는 오는 4월 10일까지 올해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참여할 농가 모집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의 환경제어를 위한 내외부 온·습도 및 토양수분 센서 장비와 환풍기, 차광커튼,

제어·분석 시스템 등을 개소당 2억 원 범위 내에서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25억 8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희망 농가는 다음 달 10일까지 시군 농정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김포시의회, 코로나 대응에 예산 11.5% 삭감

업무추진비 20% 자진반납 1억7700여만원 감액 예상

김포시의회가 위축된 지역 경제위기 극복 재원마련을 위해 시의회 운영 예산을 대폭 감액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의회사무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시의회 운영 예산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후 각 팀별 운영예산을 추계한 결과 총 예산 15억4000만원 가운데 1억7700여만원을 감액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삭감률은 11.5%로, 시의회 운영예산이 의회운영경상경비비를 감안하면 매우 높은 비율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 및 직원 국외여비, 외부기관 위탁 교육비와 올해 신설된 의원정책개발비 등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고, 국내여비 20%를 비롯해 사무실 운영에 들어가는 일반운영비까지 감액한다. 특히 업무추진비에 관련해서는 자진반납을 결정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일괄 20% 반납하기로 했다. 부문별 예산액을 바탕으로 감액을 진행하는



것이라 전반의 의회가 3개월 남은 것을 감안하면 전반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체감하는 실제 감액율은 40%에 이른다. 아울러 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기관 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또한 20%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신명순 의장은 "김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부분이 필요하다"며 "지방정부들이 재원을 짜내며 각종 지원정책을 쏟아내는 만큼 시 집행기관의 정책이 의회에 제출되는 대로 신속히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포(경기)=안성기 기자 ask9990@

소상공인 두번 죽이는 자금지원

광주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폭주 대책발표후 하루 1000명 이상 신청 담보, 이자, 보증료 없는 '3無' 지원 신용보증재단서 직원 파견 나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휘청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에 신청이 폭주하면서 자금 지원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돼 상인과 금융권 모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25일 광주시와 광주 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두 기관은 담보, 이자, 보증료 등이 없는 이른바 '3무(無)'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을 통해 최대 7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시가 지원하는 1년 치이자(2.9%)와 보증수수료를 합쳐 최대 259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5일 대책 발표 후 신청자는 하루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10만5000명 대상자 가운데 1만5000명 가량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하루 처리 용량은 200~300건에 그쳐 신청 서류는 나날이 쌓이고 있다. 한시가 급한 신청자들은 밀리고 밀려 자금 지원까지 한 달이나 한 달 반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까지 전담 창구를 만들어 접수와 상담 업무 등을 지원하는데도 폭주하는 신청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동안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접수, 상담, 심사, 보증서 발급까지 절차를 모두 진행했다. 신용보증재단에는 상담 안내를 전담할 은행 직원들이 파견됐으며 다음 달 초에는 청년 인턴 30명도 투입된다. 시와 신용보증재단은 하루 500건을 목표로 인력 증원, 처리 속도 향상을 추진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청 폭주로 보증 한도를 넘어서면 제도를 뒤흔들게 안 소상공인은 지원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광주 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혹시나 지원이 끊길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어 중앙에 문의를 해보기도 했지만 한도가 거의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것 같다"며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니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신청을 해달라"고 말했다. /광주=김태수 기자 ts7080@metroseoul.co.kr



파주 '천원택시 1주년'... 복지+소득 두토끼

작년 12월 기준 2만7400여명 이용 택시 업계에 2.5억원 예산 지출 천원택시 배차성공률 96.3%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운영한 '파주시 천원택시'가 운행 1주년을 맞았다. 파주는 도농복합도시로 면적이 넓고 농촌에는 인구가 산발적으로 분포돼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최중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민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상으로 '천원택시'를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다. 그 결과 지난해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파주 천원택시'가 대상을 수상하는 결실도 맺었다. '파주시 천원택시' 운행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추진과정과 성과를 살펴봤다. 수요응답형 공공형 택시인 파주시 천원택시는 2019년 12월 말 기준 30개 마을, 2만7400여 명의 마을 주민이 이용했다. 택시업계에는 2억50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됐다. 운행지역의 마을 주민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365일 연중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운영한 '파주시 천원택시'가 운행 1주년을 맞았다. /파주시청

무휴로 운영되는 천원택시를 하루 2회, 오전 9시~오후 5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방식을 정했다. 천원택시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접수된 총 2만8430건 중 2만7392건이 배차되며 96.3%라는 높은 배차 성공률을 보였다. 하루 평균 이용자도 4월 33.3명에서 시작해 ▲8월 64.4명 ▲9월 119.2명 ▲11월 170.5명 ▲12월 191.3명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천원택시 운영을 개시한 4월엔 기존 14개 마을을 대상으로 천원택시가 운행됐으나 9월부터 30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며 하루 평균 이용자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파주시 천원택시는 이용주민이 사전에 등록한 본인의 전화번호로 콜센터에 전화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택시가 배차돼 1000원(이용자 부담)으로 이동할 수 있고, 관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운행실적이 전산 기록돼 운전자가 별도 영수증 첨부을 하지 않아도 정산 처리가 가능하다. 파주시는 이용자가 더 편안하고 즐거운 수요자 중심의 천원택시를 운영하기 위해 이용자 5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만족 40% ▲만족 39% ▲보통 16% ▲불만족 5%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음 것으로 나타났다. /파주(경기)=안성기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27 | 해질 / 18:49

3월 26일 (木) 음력 : 3월 3일

수도권 날씨 9 ~ 20°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연천 3/20, 동두천 5/21, 가평 3/20, 서울 9/20, 양평 5/21, 평택 5/21, 수원 10/20, 용인 10/20, 백령도 8/12, 파주 3/20, 인천 9/1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드라이브 스루 도시락'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문경시, 사회적거리두기 실천도 거리두기 실천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문경새재 내에 있는 음식점을 비롯해 문경읍, 가은읍에 이어 문경시 전업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드라이브 스루 도시락'은 차에서 주문하고 상품을 받는 승차 판매 방식을 말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겠다는 취지로 시작했다. 문경새재 내에 있는 음식점을 비롯해 문경읍, 가은읍에 이어 문경시 전업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드라이브 스루 도시락'은 차에서 주문하고 상품을 받는 승차 판매 방식을 말한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소비심리 위



드라이브 스루 도시락. 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공중위생업소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드라이브 스루 도시락' 판매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어려운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 /경북=장성우 기자 krhon@